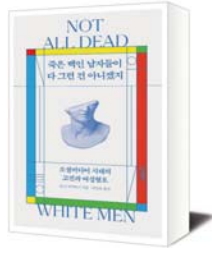


새 책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임경·권준석 지음)=2015년 처음 출간된 책의 5판 개정판이다. 돈이 움직이는 이유부터 환율과 금리, 돈의 흐름과 조절, 금융위기, 환율과 외환 정책 등 간단하지 않은 주제들을 쉬운 말로 설명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를 미국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등 최근 이슈들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다. 생각비행. 3만원.



▶죽은 백인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도나 저커버그 지음, 이민경 옮김)=저자는 고전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온 젊은 고전학자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고대 그리스·로마 문헌을 인용하는 남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드필의 답론을 분석한다. 문예출판사.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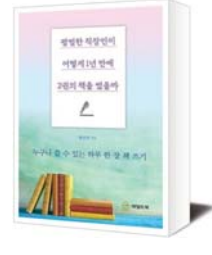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안셀름 그렌 지음, 김기철 옮김)=산행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안셀름 그렌 신부의 산행 에세이다. 자신의 경험에서 가져온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비견해 이야기를 서술한다. 생활성서사. 1만3000원.



▶영혼을 품다, 히말라야(박경미 지음)=‘죽음의 지대’라는 히말라야 고산. 그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과 고산 등반가의 삶과 철학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솔직한 시선으로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삶을 사유한다. 더불어 트레킹을 가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풍부하게 담겼다. 도트북. 1만7500원.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년만에 2권의 책을 썼을까(황준연 지음)=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는 저자는 책과 사람의 만남, 많은 깨달음의 순간 덕분에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다고 말한다. 책은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7개월 만에 마침내 작가가 된 저자의 이야기와 동시에 저자가 변화하던 순간과 꿈꾸는 미래를 담았다. 와일드북. 1만6000원.



▶행복한 청소년(김성은 지음)=예민했던 어린 시절 아픈 기억부터 늦은 나이 결혼해 재미있게 살아가는 현재의 이야기까지 담백하고 진솔하게 털어놓은 작가의 첫 에세이 집이다. 제주에서 태어난 작가의 교우관계 일화부터 사회 초년생 분투기, 아버지와의 갈등, 결혼, 낯선 도시에서 만난 인연 등 작가의 일상이 공개된다. 복인. 1만3000원.



행복 산업의 호황에 연민과 공감은 없다

에바 일루즈 등 공저 '해피크라시'

행복 강박 사회 위계 정당화 삶의 혁신 정의와 앞에 있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다. 행복은 우리 삶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증거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 통하고 있다. 어느새 행복은 규범이요, 행복한 개인은 정상성의 원형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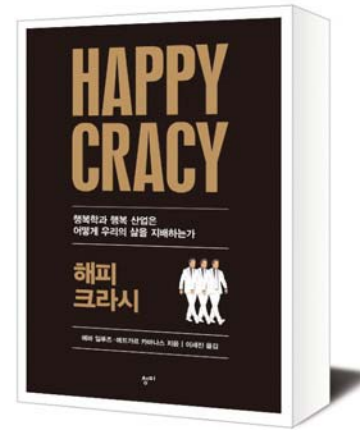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에바 일루즈,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에드가르 카바니스는 ‘해피크라시(HAPPYCRACY)’에서 오늘날의 ‘행복 강박’을 비판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절대 명령이 우리 삶의 방향과 행동 방식을 지휘하고 있는 현실이 바람직할까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두 저자는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역경을 마주하는 좋은 태도이고 성찰과 반성을 거치기만 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긍정성이 일종의 독재적 태도가 되어 불운과 무기력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면서부터다. 각자가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세상에는 연민과 공감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

이들은 부정적 감정과 사고를 억누르면 사회의 암묵적인 위계를 정당화하기가 수월해지고 특정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유의 억압은 고통을 마땅치 않은 것으로 폄하한다. 부정성은 비생산적이니 생산적인 긍정성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압박은 분노, 불안, 번민 같은 감정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아가 쓸모없고 무익한 정서로 여긴다.

행복은 시장에서 개인의 발전과 역량 증진을 평가하는 잣대라는 점



에서 명실상부한 ‘상품’이 되었다는 저자들은 ‘행복 장사치’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신 부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변화의 의지, 기성 질서에 대한 거부분노나 회한 같은 감정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행복 산업은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교란하고 흐려놓고 있다”고 밝힌 그들은 다음의 결론에 다다른다. “삶을 혁신하는 도덕적 목표로 남아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정의와 앞이다.” 이세진 옮김. 청미. 1만6500원. 전성희기자

장소의 기억 지키는 작고 낮고 느린 건축

구마 겐고의 ‘... 건축을 말하다’

건축가 구마 겐고는 문학과 음악, 건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든다면, 건축은 눈앞의 대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눈앞의 상황에 맞서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은 생활의 일상에서 보면 생사와 관련된 절실한 행동 원리다.

안도 다다오 등을 잇는 일본의 4세대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구마 겐고, 건축을 말하다’로 원제는 ‘구마 겐고가 쓴 구마 겐고’다. 도쿄대 건축학과 교수인 구마 겐고는 일본 건축의 한 축을 받치고 있는 이로 서귀포(제주아트빌라스)에도 동근 제주 오름을 형상화한 그의 설계 작품이 있다.

이 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쓰여졌다. 구마 겐고는 당시 “건축이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는가?”라는 생각이 들며 미래가 단허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내일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태어난 장소, 자신을 키워준 장소를 떠올렸다. 장소에 묻든 여러 가지 추억, 장소 위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우리를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고, 낮고, 느림을 추구하는 그의 건축 철학에는 어떻게 하면 장소를 지키면서 그곳에 불건을 만들거나 디자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일본 안팎에서 펼친 건축 작업에는 조용히 존재하는 장소를 지켜보는 건축가 구마 겐고가 있었다.

그는 나무, 대나무, 종이, 세라믹, 천 등 약한 소재를 구조체로



택았었다. 콘크리트는 일단 굳어 버리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무겁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재사용을 할 수 없으며 좀처럼 정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목조건축은 언제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편안한 여유로움을 지녔다고 했다. 누구나 건설과 해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을 그는 ‘궁극적인 데모크라시 건축’이라고 칭했다. 이정환 옮김. 나무생각. 1만5800원. 전성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한진오의 '제주 동쪽' 점처럼 찍힌 24곳 눈부시고 아프다



구좌읍 종달리 지미오름 정상에서 내려 본 전경. '제주 동쪽'에 실린 사진으로 21세기북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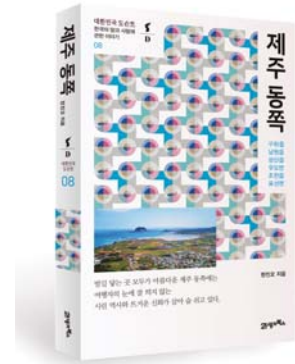
제주 동쪽하면 성산과 우도가 먼저 떠오른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뜨거운 땅인 그 동쪽 마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제주신화와 곳을 연구하고 이를 창작의 무대로 확장해온 한진오 작가가 쓴 ‘제주 동쪽’이다. 출판사가 인문지리 시리즈로 기획한 ‘대한민국 도슨트’의 여덟 번째 책이면서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퍼낼 네 권 가운데 첫 권이다.

‘제주 동쪽’은 구좌, 남원, 성산, 우도, 조천, 표선을 아우른다. 앞장에 놓인 ‘제주 동쪽 지도’에 찍힌 24곳의 장소를 확인한 뒤 마을을 따라 그곳에 얽힌 사연을 만나게 된다.

이 섬의 유명 관광지 중에는 집단 학살 등 4·3유적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아름다운 풍광 뒤 아픈 역사’와 같은 문구는 이제 제주를 표현하는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그 같은 기억을 환기하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을 내려놓는 일일 터다.

저자는 동쪽 마을로 향하면서 ‘동부제 서거기념탑 수복 단명’, ‘1만 8천 신들의 분향’,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섬’, ‘푸른 비경에 감춰진 통탄의 역사’, ‘너른 바다발 일구는 해녀의 분고장’이란 열쇳말을 꺼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땅이나 누군가에게 여전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온평학교바당, 바다 궁전으로 가는 길로 여겨지는 용궁올레, 우도와 일출봉이 보이는 생개납둔지당, 당개할망당 등을 통해선 빼어난 경관 너머 인문 자원을 눈여겨보도록 했다.

신화가 사라진 역사의 시대에도 그 자리에 불박인 채 모든 것을 목격했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 섬의 동쪽엔 갖가지 유산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앞날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무서운 속도의 개발 바람에 휘말려” 있는 제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제주 동쪽’의 주 독자층으로 삼은 여행자는 물론 제주 토박이들에게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21세기북스. 1만7000원. 전성희기자



참치항에서 참치요리의 아우라를 느껴보세요

제주 1등 참치!!

혼자서도 즐길수 있는 바~ 가족 연인 모임을 위한 다양한 룸~ 깨끗한 시설과 최고의 참치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추수시항

참치전문점

시원한 여름메뉴 참치물회 개시

점심단품특선

참치초밥 15,000	참치회덮밥 8,000
대구지리 8,000	알탕 10,000
대구매운탕 8,000	

저녁 회코스 메뉴

VIP 95,000 진 70,000 선 55,000 미 35,000

제주시 노형동 719 예약 064-745-8808 매주 일요일 휴무